

## 남녀, 부부, 가족의 탄생

## 1. 사랑과 결혼 - 함(咸), 항(恒)

## 함(咸) ☵☶

함괘(咸卦)는 〈서괘전(序卦傳)〉에 “천지(天地)가 있는 연후에 만물(萬物)이 있고 만물(萬物)이 있는 연후에 남녀(男女)가 있고 남녀(男女)가 있는 연후에 부부(夫婦)가 있고 부부(夫婦)가 있는 연후에 부자(父子)가 있고 부자(父子)가 있는 연후에 군신(君臣)이 있고 군신(君臣)이 있는 연후에 상하(上下)가 있고 상하(上下)가 있는 연후에 예의(禮義)를 둘 곳이 있다.” 하였다. 천지(天地)는 만물의 근본이요 부부(夫婦)는 인륜(人倫)의 시작이다. 이 때문에 상경(上經)은 건(乾)·곤괘(坤卦)를 머리에 놓았고, 하경(下經)은 함괘(咸卦)를 머리에 놓고 항괘(恒卦)를 뒤에 이은 것이다. 하늘과 땅은 두 물건이므로 두 괘(卦)가 나뉘어 천(天)·지(地)의 도(道)가 되었고, 남(男)·여(女)가 교합하여 부(夫)·부(婦)를 이루므로 함(咸)과 항(恒)이 모두 두 체(體)가 합하여 부(夫)·부(婦)의 뜻이 된 것이다. 함(咸)은 감동함이니 기뻐함을 주장으로 삼고, 항(恒)은 항상함이니 바름을 근본으로 삼으며, 기뻐하는 도(道)는 스스로 바름이 있는 것이다. 바른 도(道)는 진실로 기뻐함이 있으니, 공손히 동(動)함과 강유(剛柔)가 모두 응함은 기뻐함이다. 함괘(咸卦)는 태(兌)가 위에 있고 간(艮)이 아래에 있으니, 소녀(少女)와 소남(少男)이다. 남녀(男女)가 서로 감동함의 깊음은 어린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두 어린 것이 함(咸)이 된 것이다. 간(艮)의 체(體)는 독실하고, 그침은 성각(誠慤)[정성스러움]의 뜻이 되니, 남자가 뜻이 독실하여 아래를 사귀면 여자가 마음에 기뻐하여 위로 응하니, 남자는 감동함의 먼저이다. 남자가 먼저 정성으로 감동시키면 여자가 기뻐하여 응하는 것이다.

## 咸은 亨하니 利貞하니 取女면 吉하리라

함(咸)은 형통하니 정(貞)함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吉)하리라.

象曰 咸은 感也니 天地感而萬物化生하고 聖人이 感人心而天下和平하나니 觀其所感而天地萬物之情을 可見矣리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함(咸)은 감동함이니,

柔上而剛下하여 二氣感應以相與하여 止而說하고 男下女라 是以亨利貞取女吉也니라

유(柔)가 위에 있고 강(剛)이 아래에 있어서 두 기운이 감응(感應)하여 서로 친해서 그치고 기뻐하며 남자가 여자에게 낮춘다. 이 때문에 형통하니 정함이 이로우니, 여자를 취하면 길(吉)한 것이다.

천지(天地)가 감동하면 만물이 화생(化生)하고 성인(聖人)이 인심을 감동시키면 천하(天下)가 화평(和平)하니, 감동하는 바를 보면 천지(天地) 만물(萬物)의 정(情)을 볼 수 있으리라.”

**象曰 山上有澤이 咸이니 君子이하어 虛受人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산 위에 못이 있는 것이 함(咸)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마음을 비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初六은 咸其拇라**

초육(初六)은 감동함이 그 엄지발가락이다.

**象曰 咸其拇는 志在外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감동함이 그 엄지발가락인 것은 뜻이 밖에 있는 것이다.”

**六二是 咸其腓니 凶하니 居하면 吉하리라**

육이(六二)는 감동함이 그 장딴지니 흉(凶)하니, 그대로 있으면 길(吉)하리라.

**象曰 雖凶居吉은 順하면 不害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비록 흉(凶)하나 그대로 있으면 길(吉)한 것은 순리(順理)대로 하면 해롭지 않은 것이다.”

**九三是 咸其股라 執其隨니 往하면 吝하리라**

구삼(九三)은 감동함이 그 다리이다. 잡아 지킴을 상대방을 따라서 하니, 그대로 나아가면 부끄러우리라.

**象曰 咸其股는 亦不處也니 志在隨人하니 所執이 下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감동함이 그 다리인 것은 또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음이니, 뜻이 남을 따름에 있으니, 지키는 바가 매우 낮다.”

**九四是 貞이면 吉하여 悔亡하리니 憧憧往來면 朋從爾思리라**

구사(九四)는 정(貞)하면 길(吉)하여 뉘우침이 없으리니, 왕래하기를 동동(憧憧)[자주 왕래함]히 하면 벗만이 네 생각을 따르리라.

**象曰 貞吉悔亡은 未感害也요 憧憧往來는 未光大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정길회망(貞吉悔亡)’은 사사로운 감동에 해(害)를 당하지 않음이요 ‘동동왕래(憧憧往來)’는 광대(光大)하지 못한 것이다.”

九五는 咸其脢니 无悔리라

구오(九五)는 감동함이 그 등살이니, 뉘우침이 없으리라.

象曰 咸其脢는 志末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감동함이 그 등살인 것은 뜻이 낮은 것이다.”

上六은 咸其輔頰舌이라

상육(上六)은 감동함이 광대뼈와 뺨과 혀이다.

象曰 咸其輔頰舌은 滕(騰)口說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감동함이 광대뼈와 뺨과 혀인 것은 입에 말로만 올리는 것이다.”

항(恒) ䷟

항괘(恒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부부(夫婦)의 도(道)는 오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항괘(恒卦)로 받았으니, 항(恒)은 오래이다.” 하였다. 함(咸)은 부부(夫婦)의 도(道)이니, 부부(夫婦)는 종신토록 변치 않는 자이다. 그러므로 함괘(咸卦)의 뒤에 항괘(恒卦)로 받은 것이다. 함(咸)은 소남(少男)이 소녀(少女)의 아래에 있으니 남자가 여자에게 낮춤은 이는 남녀(男女)가 서로 감동하는 뜻이요, 항(恒)은 장남(長男)이 장녀(長女)의 위에 있으니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음은 부부(夫婦)가 집에 거처하는 상도(常道)이다. 서로 감동하는 정(情)을 논하면 소(少)가 친절함이 되고, 존비(尊卑)의 차례를 논하면 장(長)이 마땅히 삼가고 바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태(兌)와 간(艮)은 함(咸)이 되고 진(震)과 손(巽)은 항(恒)이 된 것이다. 남자가 여자 위에 있어서 남자는 밖에 동(動)하고 여자는 안에 순(順)함은 인리(人理) [인도(人道)]의 떳떳함이다. 그러므로 항(恒)이라 한 것이다. 또 강(剛)이 위에 있고 유(柔)가 아래에 있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더불며, 공손하고 동하고 강(剛)과 유(柔)가 서로 응함이 모두 항(恒)의 뜻이다.

恒은 亨하여 无咎하나 利貞하니 利有攸往하니라

항(恒)은 형통(亨通)하여 허물이 없으나, 정(貞)함이 이로우니, 가는 바를 뚝이 이롭다.

象曰 恒은 久也니 剛上而柔下하고 雷風이 相與하고 巽而動하고 剛柔皆應이 恒이니 恒亨无咎利貞은 久於其道也니 天地之道는 恒久而不已也니라 利有攸往은 終則有始也 일세니라 日月이 得天而能久照하며 四時變化而能久成하며 聖人이 久於其道而天下化成하나니 觀其所恒而天地萬物之情을 可見矣리라

〈단전(象傳)〉에 말하였다. “항(恒)은 오래함이니, 강(剛)이 위에 있고 유(柔)가 아래에 있으며, 우레와 바람이 서로 더불며, 공손하고 동하며, 강(剛)과 유(柔)가 모두 응함이 항(恒)이니, ‘항형무구이정(恒亨无咎利貞)’은 그 도(道)를 오래하는 것이니, 천지(天地)의 도(道)는 항구(恒久)하여 그치지 않는다. ‘이유유왕(利有攸往)’은 마치면 시작이 있기 때문이다.

해와 달이 천리(天理)에 순하여 오랫동안 비추며, 사시(四時)가 변화하여 오랫동안 이루며, 성인(聖人)이 도(道)를 오래하여 천하(天下)가 교화되어 이루어지니, 항상하는 바를 보면 천지(天地) 만물(萬物)의 정(情)을 알 수 있으리라.”

### 象曰 雷風이 恒이니 君子以하여 立不易方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우레와 바람이 항(恒)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서서 방소(方所)를 바꾸지 않는다.”

### 初六은 浚恒이라 貞이라도 凶하여 无攸利하나니라

초육(初六)은 깊은 항(恒)이다. 바르더라도 흉(凶)하여 이로운 바가 없다.

### 象曰 浚恒之凶은 始에 求深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준항(浚恒)의 흉함은 처음에 있으면서 구하기를 깊이 하기 때문이다.”

### 九二是 悔亡하리라

구이(九二)는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 象曰 九二悔亡은 能久中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이(九二)가 뉘우침이 없어짐은 중(中)에 오래하기 때문이다.”

### 九三是 不恒其德이라 或承之羞니 貞이라도 吝하리라

구삼(九三)은 그 덕(德)을 항상하지 않으니, 혹자가 부끄러움을 받들으니, 바르더라도 부끄러우리라.

### 象曰 不恒其德하니 无所容也로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그 덕(德)을 항상하지 못하니, 용납할 곳이 없다.”

### 九四是 田无禽이니라

구사(九四)는 사냥하나 짐승을 잡지 못하는 것이다.

**象曰 久非其位어니 安得禽也리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제자리가 아닌 곳에 오래하니, 어찌 짐승을 잡겠는가.”

**六五는 恒其德이니 貞하나 婦人是 吉하고 夫子는 凶하니라**

육오(六五)는 유순(柔順)의 덕(德)을 항상함이니 정(貞)하나 부인(婦人)은 길(吉)하고 부자(夫子)[남자]는 흉(凶)하다.

**象曰 婦人是 貞吉하니 從一而終也일새요 夫子는 制義어늘 從婦하면 凶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부인(婦人)은 정(貞)하여 길(吉)하니 하나를 따라 마치기 때문이요, 부자(夫子)는 의(義)로 제재하는데 부인(婦人)의 도(道)를 따르면 흉(凶)하다.”

**上六은 振恒이니 凶하니라**

상육(上六)은 진동(振動)하는 항(恒)이니, 흉(凶)하다.

**象曰 振恒在上하니 大无功也로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진항(振恒)으로 위에 있으니, 크게 공(功)이 없다.”

## 2. 손해와 이로움 - 손(損), 익(益)

**손(損) ䷨**

손괘(損卦)는 〈서괘전(序卦傳)〉에 “해(解)는 느슨함이니, 느슨하면 반드시 잃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손괘(損卦)로 받았다.” 하였다. 풀어놓아 느슨해지면 반드시 잃는 바가 있고 잃으면 손(損)이 되니, 손괘(損卦)가 이 때문에 해괘(解卦)를 이은 것이다. 괘(卦)됨이 간(艮)이 위에 있고 태(兌)가 아래에 있으니, 산(山)의 체(體)는 높고택(澤)의 체(體)는 깊은 바, 아래가 깊으면 위가 더욱 높아지니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는 뜻이 된다. 또 못이 산 아래에 있어 그 기운이 위로 통하여 윤택함이 초목(草木)과 온갖 물건에 미치니, 이는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는 것이며, 또 아래는 태열(兌說)이 되고 세 효(爻)가 모두 위와 응(應)하니 이는 기뻐함으로써윗사람을 받들이니, 또한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는 뜻이다. 또 아래의 태(兌)가 태(兌)가 된 것은 육삼(六三)이 변했기 때문이요, 위의 간(艮)이 간(艮)이 된 것은 상구(上九)가 변했기 때문이다. 삼(三)은 본래 강(剛)이었는데 유(柔)가 되었고 상(上)은 본래 유(柔)였는데 강(剛)이 되었으니, 또한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는 뜻이다. 위를 덜어 아래에 더하면 익괘(益卦) [i>gua42.gif</i>]가 되고, 아래에서 취하여 위에 더하면 손괘(損卦)가 된다. 인민(人民)의 위에 있는 자가 은택(恩澤)을 베풀어서 아래에 미치면 익(益)이 되고 아래의 것을 취하여 자신을 후(厚)하게 하면 손(損)이 되니, 이것을 성루(城壘)의 흙에 비유하면 위의 흙을 덜어 기본(基本)을 북돋아 두텁게 하면 위아래가 안정되고 튼튼해지니 어찌 익(益)이 아니겠는가.

아래의 것을 취하여 위를 더 높이면 위태롭고 떨어짐이 이를 것이니, 어찌 손(損)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손(損)은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는 뜻이요, 익(益)은 이와 반대이다.

**損은 有孚면 元吉하고 无咎하고 可貞이요 利有攸往하니 曷之用이리오 二簋可用享이니라**

손(損)은 부성(孚誠) [성실함]을 두면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고 허물이 없고 정(貞)할 수 있으며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 어디에 쓰겠는가. 두 그릇만 가지고도 제향(祭享)할 수 있다.

**象曰 損은 損下益上하여 其道上行이니 損而有孚면 元吉无咎可貞利有攸往이니 曷之用二簋可用享은 二簋應有時며 損剛益柔有時니 損益盈虛를 與時偕行이니라**

〈단전(象傳)〉에 말하였다. “손(損)은 아래를 덜어 위에 더하여 그 도(道)가 올라가 행함이니, 덜되 부성(孚誠)을 두면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고 허물이 없어서 정(貞)할 수 있다. 가는 바를 둠이 이로우니, 어디에 쓰겠는가. 두 그릇만 가지고도 제향(祭享)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그릇을 올리는 것이 응당 때가 있으며, 강(剛)을 덜어 유(柔)에 더하는 것이 때가 있으니, 덜고 더하며 채우고 비움을 때에 따라 함께 행해야 한다.”

**象曰 山下有澤이 損이니 君子이하어 懲忿窒欲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산(山) 아래에 못이 있음이 손(損)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분노(忿怒)를 징계(懲戒)하고 욕심을 막는다.”

**初九는 已事遄往이라야 无咎리니 酌損之니라**

초구(初九)는 일을 그만두고 속히 가야 허물이 없으리니 짐작(斟酌)하여 덜어야 한다.

**象曰 已事遄往은 尚(上)合志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이사천왕(已事遄往)’은 위와 뜻이 합하기 때문이다.”

**九二는 利貞하고 征이면 凶하니 弗損이라야 益之리라**

구이(九二)는 정(貞)함이 이롭고 가면 흉(凶)하니, 자신의 지조(志操)를 덜지 않아야 유익(有益)하게 하리라.

**象曰 九二利貞은 中以爲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구이(九二)의 이정(利貞)은 중(中)으로 뜻을 삼았기 때문이다.”

六三是 三人行엔 則損一人하고 一人行엔 則得其友로다

육삼(六三)은 세 사람이 갈 때에는 한 사람을 덜고, 한 사람이 갈 때에는 그 벗을 얻는다.

象曰 一人行은 三이면 則疑也리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일인행(一人行)’은 셋이면 의심하리라.”

六四是 損其疾호되 使遄이면 有喜하여 无咎리라

육사(六四)는 그 병을 덜되 빠르게 하면 기쁨이 있어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損其疾하니 亦可喜也로다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병을 더니 기뻐할 만하다.”

六五是 或이 益之十朋之龜어든 弗克違니 元吉하니라

육오(六五)는 혹자가 십봉(十朋)의 거북을 더해주되 사양할 수 없으니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다.

象曰 六五元吉은 自上祐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육오(六五)의 원길(元吉)은 위로부터 도와주는 것이다.”

上九는 弗損이라도 益之니 无咎어니와 貞이면 吉하여 利有攸往이니 得臣이 无家리라

상구(上九)는 덜지 않더라도 더해주니 허물이 없거니와 정(貞)하면 길(吉)하여 가는 바를 두이 이로우니, 신하(臣下)를 얻음이 집안에서만 아니리라.

象曰 弗損益之는 大得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불손익지(弗損益之)’는 크게 뜻을 얻는 것이다.”

익(益) ≡≡≡

익괘(益卦)는 〈서괘전(序卦傳)〉에 “덜어내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더해준다. 그러므로 익괘(益卦)로 받았다.” 하였다. 성쇠(盛衰)와 손익(損益)은 고리를 도는 것과 같아 손(損)이 극(極)에 이르면 반드시 더해줌은 이치의 자연이니, 익괘(益卦)가 이 때문에 손괘(損卦)를 이은 것이다. 괘(卦)됨이 손(巽)이 위에 있고 진(震)이 아래에 있으니, 우레와 바람 두 물건은 서로 더해주는 것이다. 바람이 맹렬하면 우레가 빠르고 우레가 격렬하면 바람이 거세어져 둘이 서로 돕고 더해주니, 이 때문에 익(益)이라 한 것이니, 이는 상(象)으로써 말한 것이다. 손(巽)과 진(震) 두 괘(卦)는 모두 아래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양(陽)이 변하여 음(陰)이 된 것은 손(損)이요 음(陰)이 변하여 양(陽)이 된 것은 익(益)이다. 위의 괘(卦)가 덜

려 아래 괘(卦)에 더해졌으니, 위를 덜어 아래에 더해줌은 덜어서 유익함이 되는 것이니, 이는 의(義)로써 말한 것이다. 아래가 후하면 위가 편안해진다. 그러므로 아래를 더해줌이 익(益)이 되는 것이다.

**益은 利有攸往하며 利涉大川하니라**

익(益)은 가는 바를 돕이 이로우며 대천(大川)을 건넘이 이롭다.

**彖曰 益은 損上益下하니 民說(悅)无疆이요 自上下下하니 其道大光이라 利有攸往은 中正하여 有慶이요 利涉大川은 木道乃行이라 益은 動而巽하여 日進无疆하며 天施地生하여 其益이 无方하니 凡益之道 與時偕行하나니라**

〈단전(彖傳)〉에 말하였다. “익(益)은 위를 덜어 아래에 더해주니 백성의 기뻐함이 무강(無疆)[무궁(無窮)]하고, 위로부터 아래에 낮추니 그 도(道)가 크게 빛난다. 가는 바를 돕이 이로움은 중정(中正)하여 경사(慶事)가 있는 것이요. 대천(大川)을 건넘이 이로움은 나무의 도(道)가 이에 행해진 것이다.

익(益)은 동(動)함에 공손(恭遜)하여 날로 나아감이 무궁하며 하늘이 베풀고 땅이 낳아 그 유익(有益)함이 일정한 방소(方所)가 없으니, 무릇 익(益)의 도(道)는 때에 따라 함께 행하는 것이다.”

**象曰 風雷益이니 君子以하여 見善則遷하고 有過則改하나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바람과 우레가 익(益)이니, 군자(君子)가 보고서 선(善)을 보면 옮겨가고 허물이 있으면 고친다.”

**初九는 利用爲大作이니 元吉이라야 无咎리라**

초구(初九)는 〈유익(有益)한 일을〉 크게 일으킴이 이로우니,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여야 허물이 없으리라.

**象曰 元吉无咎는 下不厚事也일새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원길무구(元吉无咎)’는 아래에 있는 자는 후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六二는 或이 益之十朋之龜어든 龜도 弗克違나 永貞이면 吉하니 王用享于帝라도 吉하리라**

육이(六二)는 혹자가 십봉(十朋)의 거북을 더해 주거든 능히 어기지 못할 것이나, 영구히 하고 정고(貞固)하게 하면 길(吉)하니, 왕(王)이 상제(上帝)에게 제향(祭享)하더라도 길(吉)하리



라.

**象曰 或益之는 自外來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혹 유익(有益)하게 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六三은 益之用凶事라 无咎니 有孚하고 中行하여 告公用圭니라**

육삼(六三)은 흉(凶)한 일로 더해주는 것이니 허물이 없다. 성실(誠實)함을 두고 중행(中行)으로 하여 공(公)에게 고(告)하되圭(圭)[신(信)]로써 하여야 한다.

**象曰 益用凶事는 固有之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익용흉사(益用凶事)’는 견고히 간직하기 위한 것이다.

**六四는 中行이면 告公從하리니 利用爲依遷國이니라**

육사(六四)는 중행(中行)[중도(中道)]으로 하면 공(公)에게 고(告)함에 따르리니, 의지하여 국도(國都)를 옮김이 이롭다.

**象曰 告公從은 以益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공(公)에게 아뢰어 따라주는 것은 유익(有益)하게 하려는 뜻 때문이다.”

**九五는 有孚惠心이라 勿問하여도 元吉하니 有孚하여 惠我德하리라**

구오(九五)는 은혜로운 마음에 정성을 두고 있다. 묻지 않아도 크게 선(善)하여 길(吉)하니, 정성을 두어 나의 덕(德)을 은혜롭게 여기리라.

**象曰 有孚惠心이라 勿問之矣며 惠我德이 大得志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은혜로운 마음에 정성이 있으니 물을 것이 없으며, 나의 덕(德)을 은혜롭게 여김은 크게 뜻을 얻는 것이다.”

**上九는 莫益之라 或擊之리니 立心勿恒이니 凶하니라**

상구(上九)는 유익(有益)하게 해주는 이가 없다. 혹 공격하리니, 마음을 세우되 항상하지 말아야 하니, 흉(凶)하다.

**象曰 莫益之는 偏辭也요 或擊之는 自外來也라**

〈상전(象傳)〉에 말하였다. “유익하게 해주는 이가 없다는 것은 한쪽만 말한 것이요, 혹 공격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다.”